손흥민 벤치·김민재 군사훈련… 클린스만 지도력 시험대

축구 대표팀 오늘 페루와 평가전

손흥민 탈장수술 상태 지켜봐야
공격라인에는 황희찬·오현규
주장 김승규 "무실점 경기 하겠다"

페루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훈련에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빠져도 공격라인에 황희찬(울버햄프턴)도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15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페루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플랜A'를 보게 될 것이다.(웃음) 플랜B, 플랜C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팀은 16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페루와 평가전을 치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황희찬이 울버햄프턴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3월 A매치 때보다 성장을 많이 했다. 또 3월 A매치 때 득점이 취소됐던 오현규(셀틱)도 첫 시즌에 트레블을 달성하고 돌아왔다. 코치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B와 플랜C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루의 경기력에 대해 "어려운 경기를 예상한다. 페루가 3월에 치른 경기를 비롯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분석했다. 페루가 월드컵 본선에는 못 갔지만 예선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는 3월 A매치 때 콜롬비아처럼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할 팀"이라며 "대표팀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선수 변화가 많지만 잘 준비해서 3월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 벤치에는 함께 할 것"이라며 "귀국한 이후부터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출전의 희망은 있지만 오늘과 내일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치른 뒤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귀국했고, 지난 12일부터 대표팀 소집훈련에 합류했지만 100%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을 대신해 클린스만호의 '임시 주장'을 맡은 골키퍼 김승규(알샤바브)는 "평소와 다른 수비라인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럴 때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무실점 경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호는 6월 A매치 2연전을 준비하면서 '주전 센터백' 김민재-김영권 조합이 나서지 못하는 악재를 만났다. 김민재는 군사훈련을 받는 가운데 김영권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의 페루전 출전이 불투명해지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 소집된 대표팀의 '맏형'인 김승규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다.

개인통산 A매치 73경기째를 앞둔 김승규는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해 뛰는 선수들에게는 '집중해라'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며 "소속팀에서 다들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알아서 긴장하고 경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믿음을 보냈다.

그는 "포백 라인에 변화가 심하지만 이럴 때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멤버로 경기해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의리 "오늘 특별한 날"…생일 3연승 도전

NC와 홈경기 선발 등판

이의리의 '생일 자축' 승리가 이어질까?

KIA 타이거즈가 16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즌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두 팀은 지난 4월 25일부터 광주에서 시즌 첫 3연전을 벌였다. 첫 대결에서는 메디나의 KBO리그 첫 승이 기록되는 등 KIA가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5월 5일에는 창원으로 자리를 옮겨 시즌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했다. 하지만 3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단 한 경기도 진행되지 않았다.

오랜 만에 다시 만나는 NC를 상대로 이의리가 16일 7승 사냥에 나선다. 이의리의 '연승' 도전이기도 하다.

이의리는 헤드샷 퇴장을 당했던 5월 25일 한화전을 제외하고 최근 4경기에서 승리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9일 키움전에서 7이닝 9K 1실점의 호투로 시즌 3승째를 기록한 뒤 5월 3일 KT전(5이닝 11K 1실점), 6월 4일 롯데전(5이닝 8K 무실점), 6월 10일 두산전(6이닝 4K 3실점)까지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이의리의 시즌 5연승이자 '생일 3연승' 도전이기도 하다.

2002년 6월 16일 생인 이의리는 프로에서의 첫 생일이었던 2021년 6월 16일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이의리는 이날 오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발탁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SSG와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 나서 5.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10개의 탈삼진도 뽑아낸 이의리는 경기가 KIA의 2-0 승리로 끝나면서 "(대표팀에) 뽑힐 만했으니까 뽑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당당히 승리투수 인터뷰를 했다.

이의리는 지난해 생일에도 승리투수가 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무대는 창원NC파크였다. 이날 NC 좌완 구창모와 선발 맞대결을 했던 이의리는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0-2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7회초 선배들이 이의리에게 생일 선물을 안겨줬다.

1사에서 이창진이 좌월 솔로포를 날려줬고, 나성범의 스리런까지 나오면서 KIA가 4-2 역전극을 펼쳤다. 그리고 장현식-전상현-정해영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이의리가 생일날 다시 한번 웃었다.

이의리

공교롭게도 이의리는 프로 세 번째 시즌에서도 생일날 선발로 나선다.

상황이 좋지는 않다. 지난해 역전 홈런을 날려줬던 나성범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 KIA의 '타선 집중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앤더슨이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했던 14일 키움전에서 1-2패가 기록되는 등 KIA의 최근 6패가 모두 1점 차 패배였다.

이길 수 있던 경기들을 연달아 놓친, 김종국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아쉬웠던 패배들이 쌓였다.

KIA가 연승과 연패를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이의리도 예측불허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의리는 최근 4연승 기간 23이닝을 소화하면서 3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기도 했지만, 15개의 사사구도 기록했다.

3년 연속 생일날 마운드에 오르는 이의리가 깔끔한 피칭과 야수진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생일 축하 인사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두현석의 패스 공격 지역에서 빛났다

5월 K리그 패킹 데이터

광주FC의 두현석(왼쪽부터), 정호연, 티모.

광주FC 두현석의 패스가 공격 지역에서 빛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5월 치러진 K리그1·2 11~15라운드 5경기를 바탕으로 월간 패킹(패스) 데이터 부문별 TOP5을 발표했다.

패킹 지수는 패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패스가 동료에게 도달했을 때 그 패스로 제친 상대 선수의 수를 의미한다. K리그 패킹지수는 총 패킹 숫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울산 수비수 김영권이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패킹지수 1위에 올랐고, 팀 동료 박용우와 이규성이 4·5위에 포진했다. FC서울의 이한범과 이태석도 2·3위에 나란히 랭크됐다. 김영권은 5월 5경기에서 324개의 패스를 성공했고, 이 패스로 561명을 제치며 1위에 자리했다. 평균 패킹은 1.74.

세부 지표에서는 광주 두현석, 정호연, 티모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현석은 파이널 서드(공격지역) '탑 5' 중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현석은 공격 지역에서 77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125명을 따돌렸다. 평균 패킹은 1.62.

1위는 이규성(82패스·131패킹·평균 1.60)이 차지했고, 3·4위에 박용우와 이명재가 이름을 올리면서 역시 울산의 몫이었다.

광주 '살림꾼' 정호연은 50개의 패스로 94개의 패킹을 기록(평균 1.88)하며 5위에 자리했다.

4월 패킹 데이터 결산 명단에 포함됐던 티모가 5월에도 패스 실력을 보여줬다.

4월 결산에서 전체 4위, 장거리(30m 이상)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렸던 티모는 5월 데이터에서는 장거리 부문 4위에 랭크됐다. 티모는 33개의 패스로 117개의 패킹을 기록했다. 패스 하나로 3.55의 선수를 제치면서 효율적인 패스를 선보였다.

한편 전남드래곤즈의 장성재는 K리그2 패킹 데이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장성재는 5월 한달 4경기에 나와 262개의 패스로 308개의 패킹을 기록했다. 평균 패킹은 1.18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크로아티아, 연장서 네덜란드 꺾고 결승 선착

유럽축구 네이션스리그

크로아티아가 연장 혈투 끝에 네덜란드를 꺾고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았다.

크로아티아는 1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2022-2023 UEFA 네이션스리그 4강전에서 전·후반 90분간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가 연장에서 2골을 추가하며 4-2로 네덜란드를 물리쳤다.

처음으로 이 대회 결승에 진출한 크로아티아는 16일 스페인-이탈리아 경기의 승자와 최종 승자를 가린다.

기선을 제압한 쪽은 네덜란드였다. 전반 34분 도니얼 말런(도르트문트)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먼저 크로아티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후반 시작 8분 만에 간판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지역에서 드리블 중 반칙을 얻어내 끌려가던 분위기를 뒤집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안드레이 크라마리치(호펜하임)가 침착하게 마무리한 크로아티아는 루카 이바누셰츠(디나모 자그레브)의 패스를 문전에서 마리오 파샬리치(아탈란타)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승부를 2-1로 뒤집었다. 패색이 짙어가던 네덜란드는 후반 종료 직전 노아 랑(클뤼프 브루게)이 문전에서 혼전이 빚어진 틈에 흘러온 공을 차 넣으면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에서 크로아티아의 해결사로 나선 선수는 브루노 페트코비치(디나모 자그레브)였다.

연장 전반 8분 중거리 슛으로 3-1로 달아나는 득점을 올린 페트코비치는 후반 11분에 타이럴 말라시아 모드리치가 키커로 나서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확정하는 쐐기 골을 터뜨렸다.

/연합뉴스